

## 그리스도인 21.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

Christian 21. Christians are justified by faith.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  
다.(being justified by faith, 롬 5:1)

1.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갖게 된다.

육체의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오감이라면 하늘에 속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  
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은 그것이 스  
스로 생겨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 생기기 때문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롬 10:17).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2.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히 12:2).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  
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  
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갈 2:20)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것에 근거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다.

3.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상으로 한다. 그리하여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증언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을 설명하면서, “유대  
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행

20:21)했다고 썼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엡 1:15)이라고 썼다. 이 모든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이 결국 주 예수님이심을 보여준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외 없이 동일하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도 표현된다.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은 그분을 믿는 믿음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화해 헌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참오심을 통해 전에 지은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고, <sup>26</sup>내가 말하노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의로우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롬 3:25-26)

결국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며 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4. 믿음에는 지적인 면, 그것을 인정하는 면,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도록 적용하는 면이 있다.

그것들을 앎, 수긍,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으며 자기의 어떠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약속하신 주님을 온전히 확신했다.

그가 불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sup>21</sup>그분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였느니라.(롬 4:20-21)

이렇게 앎과 수긍, 신뢰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여기서 받아들인다(received)는 말은 결국 그분에 대해 알고 수긍하며 신뢰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믿는다(believe)는 것과 같다.

5. 믿음은 일정한 교리들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앎의 요소로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 앎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식적으로 안 것만으로는 믿었다고 할 수가 없다. 믿음은 지적으로 알고 그것을 수긍하며 또 그것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 믿음은 자기가 생각한 바를 확고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생각한 바를 의지하는 것

은 신념이다.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자기 생각에 기초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 믿음은 자기 최면 같은 것도 아니다.
- 믿음은 개인적인 수공과 신뢰가 없이 그저 쇠뇌당하 듯 하는 것도 아니다.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 6. 믿음은 변화를 일으킨다.

한 사람이 믿게 될 때, 그의 인격은 그 믿음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생활로, 믿음에 의해 변화가 나타난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기 때문이다.(고후 5:7)

믿음은 우리 평생에 주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했다.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다면 믿어야 한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께 신뢰를 둔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